

# ‘고추·마늘·생강’으로 살펴본 농민문화

●국립민속박물관 ‘전통 향신료와 농민문화’ 조사보고서 발간



한국의 대표 향신료 고추·마늘·생강을 중심으로 관련 전통 지식과 농민생활을 담아낸 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이 근현대 민속 조사사업 결과로 펴낸 ‘전통 향신료와 농민문화’ 조사보고서다.

형태·재배지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고추 옛 이야기부터 생강 저장방식, 농업 환경변화 따른 마늘 재배 사례 등 다뤄

### ◇전통 향신료 3대장과 옛 이야기

과거 고추·마늘·생강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쓰였다. 고추는 사내아이 출산 후 대문에 거는 금줄과 굿판의 제물로 사용됐다. 마늘은 과거 치병약재에 사용됐는데, 주로 문 앞에 걸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을 막는 데 쓰였다. 생강은 귀한 선물이었다. 조선 전기 문신 심종은 임금 모르게 생강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아 문제가 됐고, 조선 후기 전라도 관찰사 김교근은 김조순에게 청탁용으로 생강정과를 보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고추·마늘·생강의 다양한 쓰임을 확인하고 과거 전통 향신료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적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 ◇전통 향신료 재배 관련 전통지식에 주목

고추에는 전통적으로 형태와 재배지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있었다. 농민들은 고추 모양에 따라 ‘칼초’, ‘봉어초’, ‘별초’, 재배지에

따라 ‘수비초’, ‘대화초’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추를 가을밀이나 감자의 뒷구렁이 방식으로 재배했음을 확인했다.

생강은 저장방식이 독특한데, 생강이 상하지 않도록 집 아래 굴을 만들어 보관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굴을 넓히다가 땅바닥이 내려앉는 해프닝도 종종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아궁이굴 방식에서 수직굴, 수평굴로 변화하는 양상을 밝혀냈다.

마늘은 밭에서 재배했을 뿐 아니라 논에서 이모작으로 재배해 온 특징이 있다. 경북 의성과 충북 단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벼·마늘 이모작을 했으나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재배 방식이 달라졌다.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여전히 벼·마늘 이모작을 유지하고 있지만, 충북 단양에서는 콩·마늘 이모작으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 ◇전통 향신료 관련 요즘 사람들 이야기

이 조사보고서는 향신료 관련 전통지식과



▲영양 수비초 고추밭

▲마늘 손질 중인 단양군 농민들

함께 향신료 재배와 관련한 사회상도 다양하게 담았다. 노부부의 고추장 만들기, 고추장 체험농가의 코로나19 극복 사례, 산골 주민들의 시절식 고추죽,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개발과 지역 시장 활성화 사례, 생강 재배에 나선 귀농인들의 모습, 농산물 개발에 맞

선 농민들의 이야기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전통 향신료와 관련해 사람들의 희망과 고난을 기록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조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발간자료 원문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새로 나온 책



▲허공을 오르는 클라이머=정순영 저자

여든을 바라보는 길목에서 늦깎이 문인이 된 정순영 시인이 첫 시집 ‘허공을 오르는 클라이머’를 펴냈다. 정순영 시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시적 의문을 하나하나 이야기 형식으로 흐름을 만들며 시적 대상과의 내재된 의도에 맞춰 그려내고 있다.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허공을 오르는 클라이머’는 현실에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공상적 사물일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상에 의한 존재적 상상이 아름다운 이유를 작품의 열린 품을 읽어가며 느낄 수 있다. /시와사자사·1만2천원



▲말(言) 꽃이 그리움다=송관교 저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이라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저자는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황금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작품집 ‘말(言) 꽃이 그리움다’는 휴머니티와 따뜻함으로 세상을 품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말의 아이언이다. /천우·2만원



▲오십에 읽는 맹자=조형권 저자

맹자의 언행과 맹자와 왕, 맹자와 제자들의 담화가 담긴 ‘맹자’에서 오십에 필요한 쫓기지 않는 이야기를 골라 우리 시대 이야기와 함께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안목과 품격을 갖춘 중년으로 살기 위해 채워야 할 맹자의 가치를 안내한다. 맹자가 제시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호연지기’다. 이 다섯 가지를 현실적인 상황과 오십의 마음 상태에 맞춰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넓고 큰 마음과 어려운 일도 현명하게 바라보는 신념을 갖추고 인간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유노북스·1만9천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무례요코 지음, 이수은 옮김

예비 남편의 피규어 수집이 불편한 책 수집가 예비 아내, 방 한 가득 밭 디딜 틈 없이 물건을 쌓아두는 엄마가 불만인 딸, 온갖 하이힐과 화장품에 아이마져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가 이채되지 않는 시아버지까지, 이 책에는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과 그들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 꼬여버린 관계, 후회 가득한 과거의 선택, 불안한 미래 등 무례 요코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끊어냄으로써 질질 끌어온 삶의 문제들도 털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콤·1만6천800원

# ‘빛과 공기, 시간의 흐름’... 사진으로 담아낸 도시의 컬러·문화

송상진 사진가 ‘한강을 따라서’ 사진집 발간



“한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송상진(사진) 사진가가 한강을 주제로 한 사진집 ‘한강을 따라서’를 발간했다.

이 사진집에는 송 사진가가 지난 3년 간 발품을 팔아 촬영한 9천여 컷의 한강 관련 사진 중 400여장을 엄선해 그 중 일부를 담았다.

이 책자는 오늘날 한강의 다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성장하는 사회의 모습을 잘 담아내며,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한다.

또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뿐만 아니라 강 자체와 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휴식을 하러 모여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한강을 통해 서울의 빛과 공기, 시간의 흐름 그리고 도시의 컬러와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상진 사진가는 “한강은 태백산맥에서



▶송상진 사진가가 찍은 '한강'



시작해 강원, 경기, 서울을 거쳐 서해로 흘러가는데 전체 497km 구간중 서울 강동구에서 강서구에 이르는 41.5km 서울 구간에 집중했다”며 “한강의 색다른 느낌, 아름다운 멋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상진 사진가는 광주시에서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으며 재직 중에도 여행사진 컨설팅 과정 수료, 사진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등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